

13 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13 : 1)

제자들은 지금 주전 20~19 년에 헤롯 대왕에 의해 지어지기 시작한 예루살렘 대성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의 하나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약 50 년이 걸렸으며 헤롯 대왕에 의하여 이 성전이 완성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건축물을 지을 때 거대한 돌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 건축에 사용된 거대한 돌들 중 어떤 것들은 길이가 14.1 미터, 높이가 2.4 미터, 두께가 3.6 미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최근에 서쪽 벽을 따라 진행되었던 고고학적 유물 발굴작업 중 남서쪽 귀퉁이에서 길이가 약 10.5 미터, 높이가 1.8 미터, 두께가 2.4 미터나 되는 거대한 모퉁잇돌들이 발굴되었을 때까지는, 전혀 말도 안되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계속 발굴해 나가던 중, 길이가 약 13.5 미터, 높이가 약 2.4 미터, 두께가 약 3 미터 되는 엄청난 크기의 돌들을 발굴하였는데, 이 돌들은 성전 건축에 쓰였던 돌들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돌의 무게가 약 400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 엄청난 크기의 돌들을 어떻게 떠다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쪼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옮겨와서 적재 적소에 배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아직도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돌들을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는 아직도 신비이며 추 측 불가능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돌들을 그들이 옮겨서 벽돌 쌓듯이 쌓을 수 있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돌들은 너무나도 완벽히 서로 딱 들어맞게 잘라졌기 때문에 모르타르를 바를 필요도 없이 그저 돌 위에 쌓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부식되었을텐데도 오늘날에도 두 돌 사이에 면도칼 하나를 집어넣지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은 황금판으로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황금 판에 반사되어서 눈을 부시게 하므로 사람들이 성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가면서 헤롯에 의해 이 거대한 돌들 로 건설되고 있던 놀라운 건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건물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9 년 전에 지어지기 시작했으며, 당시의 예수님은 33 세였고, 달력상 4~5 년 정도의 오차가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이 건물은 대략 47 번째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13 . 2).

예수님의 이 특이한 예언은 제자들에게 도무지 믿기 어려운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 40 년 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입하여 정복 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으로 도망하여 더 이상의 로마군의 진입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타이투스 장군은 이 성전을 손상시키지 말고 그대로 놔둔 채 유대인들만 잡으라고 명령하였으나, 술 취한 로마군인들이 성전에 불을 놓았고, 불이 온 성전을 태워 그 속의 유대인들은 모두 타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이 천장의 황금판을 녹였으며, 녹은 금이 돌들 사이의 틈으로 흘러들어갔 습니다. 그리하여 로마군인들은 이 금을 약탈하려고 성전의 돌들을 완전히 헐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뜨러지리라”고 하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서 트로피안 계곡의 유물 발굴 현장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시대에 있었던 로마의 도로에까지 계속 파헤쳐진 한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대한 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들은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의 산에서 나온 돌들로, 실제로 그 성전의 돌들로 여겨지는데, 부취 지고 밀려나가 트로피안 계곡으로 떨어져 그 계곡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정확성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고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가리켜 하신 예언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초석들이 헤롯 성전의 산 어딘가에 아직도 존 재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 솔로몬 성전의 기초석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주 강합니다. 스탠포드 연구소가 지금 용역을 받아 방사능 탐지기를 사용하여 헤롯 성전의 산 지표면 아래에서 이 돌들을 찾고 있는 데, 이 새로운 탐지기는 그곳에서 발굴되는 많은 돌들 중에서 성전 건축용 돌과 단순한 돌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솔로몬 성전의 기초석을 찾아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며 만일 찾게 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이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움직임이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전 산 재단 (The Temple Mount Foundation) 의 회장인 새뮤얼로부터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과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자기들의 생명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성경적 예언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저도 가슴이 뻘뻘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13: 3-4)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을 떠나, 기드론 계곡을 통과하여, 상당히 높고 가파른 감람산에 오르던 중, 거의 반쯤 올라와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고 앉으셨습니다. 이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께 개인적으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이런 일’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질문을 받고 예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경고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교회가 미혹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도록 경고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교회는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 양의 가족을 쓴 늑대들, 즉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13 : 6).

문선명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땅콩과 꽃 등을 팔고 있습니다. 문선명은 여기에서 이익을 얻어 대궐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 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 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힘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 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 (13 : 7-11).

예수님의 이 예언은 명백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법정에 끌려가 매맞고, 임금들 앞에 서기도 한 일들이 많았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까지 섰다가 후에 네로 황제 앞 에도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회 앞에 끌려나온 스테반의 이야기입니다. 스테반은 그들 앞에서 그들의 역사를 요약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테반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말에 격분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 스테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특이한 예언에 대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들의 선교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데에 이 예언이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교 프로그램 성취에 박차를 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암당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먼저 만국에 전해야 종말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0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교회에 쓴 편지에서 복음이 이미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고 썼습니다.

오늘날 인도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그 기원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해 오는 얘기로는, 사도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있으며, 인도 교회의 주류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의해 복음은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실로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현대적인 도구들이 없던 상황에서 그들이 가졌던 열심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정한 간증이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행하던 것에 대하여 읽으면서, ‘바울이 만일 오늘날과 같은 제트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일들을 하였을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제트 비행기들을 마음껏 이용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어”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많은 지역을 걸어다니거나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복음을 전한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비하면 얼마나 놀라운 전도자입니까? 그런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고 말한 사람은 사도 바울뿐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6 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 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전환란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실 것 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결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아직까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결코 오늘 밤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들어올리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주장이 못됩니다.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물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반드시 교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오늘날의 통신위성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즘 ‘오늘의 말씀’을 위성 통신용 라디오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을 당국과 벌이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로 작동되는 작은 수신기로, 약간의 돈만 들이면 ‘오늘의 말씀’ 방송을 고정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주파수를 인공위성에 고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각지에 있는 족속들이 태양 에너지로 작동되는 수신기를 이용해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납 전선을 불에 넣으면 전선의 차가운 부분과 뜨거운 부분 사이에서 에너지가 발생하여 그 수신기를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발달하고 있는 과학 기기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세계에 전하는 놀라운 수단들이 속속 들이 지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 아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건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의 기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3 : 12-14).

예수께서는 이것을 읽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앞에서 다니엘은 이 ‘멸망의 기증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 장, 데살로니가후서 2 장, 다니엘서 9 장과 12 장을 종합하여 제 개인적으로 이 ‘멸망의 기증한 것’ 에 대해 이해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것입니다. 성전 재건 조약들과 조치들이, 이제 곧 명성이 높아져서 통합된 유럽을 이끌고 나가게 될, 매우 강력하고 지혜롭고 빈틈없는 지도자에 의해 완벽하게 수행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 장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약을 맺은 지 3 년 반이 지난 후 그는 이 협약을 파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의 기증한 것’

을 세울것입니다 . 다니엘서 12 장 1 절에 따르면, 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다시 세운 희생 제사 제도를 무효화시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 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명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종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해 보일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심지어 가능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13 : 15 에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밋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멸망의 기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7 년 대 환란 기간 중 나중 3 년 반 동안 자행할 파괴 행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 이 기간 중에 이 자가 자행할 ‘극단적 참람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으 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능욕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명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후의 반역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자행된 후 3 년 반이 지나면, 즉 7 년 대환난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 즉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새 나라인 의와 기쁨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교회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걸옷을 찢어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이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13 : 15-19).

이 환난은 이 세상이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대환난이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은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극심할 것입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환난보다 더 극심할 것입니다. 3 년 반 동안 일어날 이 환난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강력한 반핵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종류의 가능한 가공할 만한 가상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시나리오들이, 오늘 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들을 볼 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한 전세계적인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세의 전체의 시나리오, 즉 대파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이 파괴와 환난이 꼭 인간의 기계들로 인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환난은 이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치게 될 심판에 직접 관여하실 것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광야로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 장에서 요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여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 (그 여자를 위해 예비된 곳) 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 년반) 를 양육받으매” (14 절) 이 말씀은 대환난 기간중,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광야의 어떤 곳으로 피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대환난의 나중 3 년 반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6 장에서 지금의 요르단지역인 옛 모압에게 “너는모락을베풀며 공의로판결 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들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압에게 그 문을 열어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여 대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을 거기에 숨어 있게 하라는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에 기록된 예언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일어날 때, 많은 유대인들, 즉 성전 재건을 도와주었던 그 자가 메시아라고 그때까지 믿고 주장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눈을 뜨게 되어 이제까지 그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경고에 순종하여 ‘페트라’ 라는 바위 도시로 도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 : 15-16 에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적 그리스도가 도망친 유대인들을 추격하려고 군대를 보낼 것이지만, 땅이 입을 열어 적그리스도가 보낸 군인들을 삼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 (페트라) 에서 대환난기간이 지나갈때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고 하셨습니다. 마태 복음에는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이나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여지들에게는 이 환난이 매우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급히 도망해야 되는 상황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로 인해 도망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아이 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신 것은 이들이 도망할 때 매우 힘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어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13:20).

주님은 여기에서 인간 역사의 어떤 기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 만일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줄여주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주실 것입니다.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13:21-22).

여기에서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적과 기사는 항상 하나님께로 부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미혹시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3 절) 고 하셨습니다.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13:24-25).

여기에서 예수님은 요엘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욘 3 : 15) 라고 예언한 것과 같은 날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이 예언을 사도행전 2:20 에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인용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여섯째 인을 폐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가 보니 여섯째 인을 폐할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 6 : 12-13).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13:26).

오! 이 얼마나 영광스런 날입니까? 그 엄청난 환난이 지난 후에, 세상이 거의 파괴된 상태에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그려봅시다.

“또 그 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13:27).

‘자기 택하신 지들’ 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 그 기자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3:28-31).

구약에서 언급된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 예레미야 24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 열매 광주리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9 : 10 의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기증하여졌도다” 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 1 : 7 의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떨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끊어 말갈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황폐해진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성경의 비유들에서 포도나무로 상징되었을 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도 상징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재출생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재출생을 목격한 세대가 곧 마지막 세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어떻게 서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젠가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불에 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벧후 3:10). “그러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13 : 32).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두셨습니다. 일부러 그자신에게 제한을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시는 동안은 육체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육체로 계셨을 때 예수님은 이외에도 다른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때에 대한 지식에서도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그때를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날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던 동안에는 육체와 함께 제한을 받으셨으며, 본문에서 “그날을 모른다” 고 하신 것도 예수님이 지상에서 받으신 제한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성경의 깊은 곳을 통찰하게 되어 그날과 그 시각을 아는 척 하는 것은, 속이 뻘뻘 드러다 보이는 순진한 거짓말이요 가정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특이한 성경 해석 방식이라는 것을 내세워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각 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공상가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1843 년에 밀러라는 목사가 다니엘서를 이용하여 그날과 그 시각을 알아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서 8 장에 나오는 숫자 2300 일을 2,300 년으로 고쳤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일’ 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는 ‘일’ 을 ‘년’ 으로 해석하고는, 1843 년이라는 특정한 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역사책을 들여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2300 일은 유다의 마카비우스가 성전을 정화한 때 이며,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밀러 목사가 ‘일’을 ‘년’으로 해석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충실한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밀러 목사는 그들과 함께 흰색 옷을 입고 언덕에 올라 앉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자신의 이름을 신문에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하여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1978 년 4 월 1 일이 그날이라고 주장한 내용의 테이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6 월 30 일이 그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말씀대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3 절).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지 우리는 알지 못하므로, 이 상황에서의 최고의 충고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13 : 34-37).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한밤중에 오실 수도 있고, 이른 새벽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변함없는, 지속적인 기대 속에서 사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생활입니다.